

파업에 우는 주류시장... 업계1위 업체들 노사 갈등 '진통'

오비맥주 노사 임단협 간극 줄이지 못해 8월1일 파업 강행 결정 하이트진로, 3월부터 5개월간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으로 골머리

국내 맥주시장 1위 업체인 오비맥주와 소주시장 1위인 하이트진로가 여름철 성수기 노조 파업이라는 암초를 만나 고전할 전망이다.

오비맥주 노조는 내달 1일부터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가 파업하면 공장 가동이 멈춰 맥주 생산량이 급감할 조짐이다. 하이트진로도 지난 3월부터 5개월째 계속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소주 출고율이 낮아져 고민이 크다.

양사는 특히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노조와 임금 협상 타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도 이전공장 앞 도로 무단 점거 시위를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 투입을 바라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맥주 시장 점유율 53%로 1위인 오비맥주는 8월부터 전체 생산량의 60%를 넘는 경기도 광주공장과 이

천공장 직원들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오비맥주 노사는 지난 4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노사간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 5% 인상과 복지비 2.3%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임금 인상 10%와 복지비 1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로 노조는 결국 지난 22일 임금 및 단체교섭을 위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7.1%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8월1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맥주 성수기에 파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오비맥주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칫 파업이 장기화 하면 주력 제품 생산 및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실적 감소를 막기 위해 사측은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맥주시장에서 오비맥주와 격돌하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오비맥주 파업을 예의 주시하

고 있다. 출시 4년차를 맞은 테라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화력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하지만 소주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65%가 넘는 하이트진로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화물차주 파업이 장기화하고있어서다. 화물 운송 위탁업체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3월 이후 이달까지 이전·청주 공장 진입로를 막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130여명의 화물차주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으로 6월과 7월에는 민노총과 연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하이트진로는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가 중단됐다.

현재 1일 평균 소주 물량 공급은 평소대비 80%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파업이 지속돼 출고에 지장이 많다는 분석이다. 하이트진로는 공장 진입로를 막는 화물차주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피해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



한다.

하이트진로는 불법 시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줄기를 바라고 있다. 이전·청주 공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노조 차량으로 교통 불편이 계속되는 데다 시위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오비맥주 노조는 지난해에

도 임금 협상 문제로 총파업을 했지만 일주일 만에 합의점을 찾아 올해에도 파업이 장기화한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 하이트진로는 하청업체 노사 문제여서 개인 자체가 불법이어서 자칫 파업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올해 중부세 고지분 공정가액 60% 적용

국무회의서 중부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중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고, 30세대 미만 미분양주택도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중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된다.

임대료를 5%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늘어나고, 민간 건설임대 법인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부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지난 2년 동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국 평균 17.2% 상승하는 등 중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세가 적정 수준에서 부과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중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건축 허가 대상(30세대 미만 등) 주택에도 부여한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민간 건설임대 중부세 합산 배제 요건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범위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등록'에서 '2021년 2월 17일 이후 사용승인'으로 확대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 양도분부터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을 현행 주택

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개인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상생임대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하고,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도 면제된다.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 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해당하던 상생임대인 요건도 임대개시 시점에는 다주택자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적용된다.

정부는 다음 달 관련 시행규칙을 바꾼 11월 중부세 고지분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도 한시적으로 각각 15% 인하한다.

발전용 LNG 개소세율 kg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도 순발열량 kg당 5500kcal 이상은 '49원'에서 '41.6원'으로, 5000kcal 이상~5500kcal 미만은 '46원'에서 '39.1원'으로, 5000kcal 미만은 '43원'에서 '36.5원'으로 낮춘다.

기재부는 "중부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완화 조치는 오는 11월 중부세 고지분에 반영되고, 발전용 LNG와 유연탄 개소세 인하분은 연말까지 한시 적용된다"며 "이번 조치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더 쉽게·편리하게' 전남도, 남도장터 누리집 개편



전남도는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액 552억원

간편 주문, 제로페이·온누리상품권 결제

을 달성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누리집을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 등으로 전면 개편해 26일 새롭게 개장했다고 밝혔다.

남도장터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전남도가 구축했으며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 선불식 충전 결제방식 확산 영향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 수요 급증 등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신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편의성을 갖춘 쇼핑몰로 새 단장 했다.

누리집은 소비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보다 직관적으로 바꿨다.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아 구매하도록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적용했고, 간편 주문과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등 결제 시스템을 적용했다. 향후 도내

시·군 지역화폐로 결제하도록 보강할 계획이

다. 새 단장을 기념해 오는 8월 7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도장터 전 품목 최대 40% 할인, 20% 할인 혜택 '농할쿠폰' 지급, 전북 온라인 30% 할인을 비롯해 보양식 기획전 등이 펼쳐진다.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대비해 더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의 고품질 농수축산물을 남도장터에서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힘쓰고 있다"며 "농어가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에게 가치소비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건자재값 급등에...올 상반기 건축 착공면적 12% 감소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건설공사 지연

시멘트, 철근, 골재 등 건설 자재 가격 급등으로 올해 상반기 건축물 착공 면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착공·준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착공 면적이 5843만5000㎡로 작년 상반기(6649만7000㎡)에 비해 12.1%(806만1000㎡) 감소했다고 밝혔다.

착공 동수 기준으로도 작년 상반기 9만4374동에서 올해 상반기 8만2040동으로 13.1%(1만2334동)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건설사들이 착공을 연기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착공 면적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기 동행지표인 착공과 경기 후행지표인 준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올 상반기 수도권 착공면적은 2815만6000㎡로 작년 상반기(3299만3000㎡) 대비 17.2% 감소했고, 지방도 3027만9000㎡로 작년 상반기(3250만3000㎡) 대비 6.8% 감소했다.

시도별 착공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부산(36.7%), 대구(27.2%), 광주(20.9%), 제주(19.6%) 순으로 4개 시·도에서만 증가했고, 세종은 큰 폭으로 감소(-41.5%)했다.

전국 준공 면적도 올해 상반기 5719만5000㎡로 작년 상반기(6092만4000㎡) 대비 6.1%(37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월 말 기준 전국 인허가 면적은 9275만8000㎡로 전년 동기 대비(8175만7000㎡) 대비 13.5%(1100만㎡)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로 상반기 허가 면적 증가로 향후 건축 부문 투자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오유나기자

신일, 에코 음식물처리기 시즌2 출시



신일전자(신일)는 '에코 음식물 처리기 시즌

2'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일은 지난해 7월 '에코 음식물 처리기 시즌 1'의 성능과 디자인을 강화했다.

신일은 기존 제품 대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간을 33%가량 단축시켰다. 고온 건조 매트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부피를 89% 이상 감소시켜 주며 부패로 인한 악취와 세균 증식을 막아준다. 또 데미스터 제습 방식을 적용해 처리 중 발생하는 습기와 냄새를 최소화한다.

뉴시스

알레르망 스팅크스 '이사·웨딩 더블 페스티벌'

9월 12일까지, 스팅크스 매트리스 구매 시 더블 할인

알레르망 스팅크스는 9월12일까지 전국 알레르망 스팅크스 매장에서 '이사·웨딩 더블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가을을 앞두고 이사와 웨딩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됐다. 알레르망 스팅크스 매트리스 구매 시 20% 할인에 추가 20% 할인(일부품목 제외)을 진행한다. 구매 금액대별 사은품도 증정한다.

특히 3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이벤트 참여자 10명 중 1명 확률로 추첨을 통해 수입 명품브랜드 여행용 캐리어(144만원 상당)를

증정할 예정이다.

구매 금액대별로 700만원 이상 구매 시 225만원 상당의 사은품(모던 베딩세트 또는 주지사 구스차렵, 스마트2 휴겍매트커버)을 제공한다.

500만원 이상 구매 시 160만원 상당의 사은품(몰트 베딩세트 또는 주지사 구스차렵, 스마트2 휴겍 매트커버)을, 300만원 이상 구매 시 93만원 상당의 사은품(듀드 베딩세트, 스마트2 휴겍 매트커버)을 제공한다.

20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55만원 상당의



사은품(라니엘 또는 에스턴 차렵세트, 스마트2 휴겍매트커버), 100만원 이상 구매 시 11만원 상당의 사은품(스마트2 휴겍 매트커버)이 각각 증정된다.

이슬비기자